

碩士學位論文

大學生 自願奉仕活動 實態의 地域間 比較研究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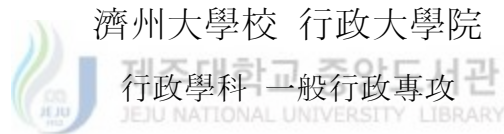
朴 容 振

# 大學生 自願奉仕活動 實態의 地域間 比較研究

指導教授 南 辰 烈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朴 容 振

朴容振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12月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 < 목 차 >

<b>제 1 장 서 론</b>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5
제3절 연구의 한계점 .....	7
<b>제 2 장 이론적 배경</b> .....	8
제1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	8
제2절 청소년 자원봉사 현황 .....	14
제3절 대학생 자원봉사 현황 .....	1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24
<b>제 3 장 연구결과 분석</b> .....	29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9
제2절. 조사대상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시 봉사활동 분석 ....	30
제3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관계분석 .....	37
<b>제 4 장 결 론</b> .....	72
제1절 연구요약 .....	72
제2절 제언 .....	74
<b>참 고 문 헌</b> .....	76
<b>Abstract</b> .....	79

## <표 목차>

<표 1-1>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현황(연령대별) .....	2
<표 1-2> 사회복지분야 학생 자원봉사자 현황(학력별) .....	3
<표 2-1> 욕구단계별 자원봉사자 배치 유형 .....	10
<표 2-2> XY이론에 따른 인간관 .....	11
<표 2-3> 위생요인과 동기부여 이론 .....	13
<표 2-4> 교육부 지정 7개 학생 자원봉사활동 유형 .....	15
<표 2-5>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현황(2002) .....	16
<표 2-6> 연도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운영실적 .....	17
<표 3-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804) .....	29
<표 3-2> 조사응답자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영역에 대한 응답 .....	30
<표 3-3> 조사응답자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응답 .....	31
<표 3-4> 조사응답자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 .....	33
<표 3-5>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응답 .....	34
<표 3-6>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	34
<표 3-7>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	35
<표 3-8>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중단 이유 .....	35
<표 3-9>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결정에 미친 요인 .....	36
<표 3-10>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	37
<표 3-11>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 .....	38
<표 3-12>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	39
<표 3-13> 성별에 따른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원인 .....	39
<표 3-14> 지역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 .....	40
<표 3-15> 지역별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주체 .....	42
<표 3-16> 지역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 .....	42

<표 3-17> 학년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	43
<표 3-18> 대학 학년별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 .....	44
<표 3-19>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학습의 기회) .....	46
<표 3-20>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소질활용의 기회) .....	46
<표 3-21>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문제 이해 기회) .....	47
<표 3-22>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장래 직업탐색의 기회) .....	48
<표 3-23>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여가시간 창의 활동) .....	49
<표 3-24>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봉사활동 타인 도움) .....	50
<표 3-25>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수혜자의 만족) .....	51
<표 3-26>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가치있는 사람) .....	52
<표 3-27>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개인적 성장 기회) .....	53
<표 3-28>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개인적 성취감) .....	54
<표 3-29>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새로운 부분 발견) .....	55
<표 3-30>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겉치레의 성격) .....	56
<표 3-31>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책임감의 필요) .....	57
<표 3-32>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보람있는 것) .....	58
<표 3-33>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인생 공부) .....	59
<표 3-34>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무보상) .....	59
<표 3-35>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비강제적) .....	60
<표 3-36>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건강사회 조성) .....	61
<표 3-37>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누구나 참여가능) .....	62
<표 3-38> 교육장소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 평균비교 .....	63
<표 3-39> 교육장소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인식차이 평균비교 .....	64
<표 3-40> 봉사교육유무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 평균비교 .....	65
<표 3-41> 봉사교육유무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 평균비교 .....	66
<표 3-42> 봉사활동 교육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차이 평균비교 .....	67
<표 3-43>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차이 평균비교 .....	68

<표 3-44> 지역별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 평균비교 ..... 69

<표 3-45> 지역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식차이 평균비교 ..... 70

<표 3-46> 봉사활동참여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차이 평균비교 ..... 71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 7



# 제 1 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경기대회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도우미의 역할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삶의 여유가 생기고 민주화 및 지방화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자원봉사 활성화가 우리사회에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인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문명의 발전으로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가족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팽배, 퇴폐적인 사회환경은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세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어렵고 귀찮은 일은 꺼려하고 안일만을 추구하려는 나약한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01).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고학력사회 풍토로 인하여 진정한 인간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학문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행이나 다른 일탈행동을 양산하는 비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영속시키는 왜곡된 교육풍토,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풍토 등으로 최근의 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장에 많은 장애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스스로 찾으려는 강한 내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키면서 상부상조정신, 공동체의식, 합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청소년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접근이다(홍봉선·남미애, 2004).

조취일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첫째, 청소년들을 시민적 책임감에 가치



를 부여할 수 있는 생활양식으로의 재사회화, 둘째, 각 개인이 자신도 사회에 의해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질병 내지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것, 셋째, 제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계층 간의 괴리를 좁히는 것, 넷째, 제반 자조적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조휘일, 1995).

교육부에서도 1994년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 건설을 위한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육의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현안문제로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창의성 부재,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 규제의 교육행정,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도덕교육의 상실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5년 5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방안에는 9개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의 정책과제의 세부내용 중에는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 강화’를 들면서 추진사항의 주요 골자로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이를 반영되도록 규정하는 등 학생봉사활동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교육부, 2001).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에는 학생봉사활동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현황 <표 1-1>과 <표 1-2>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1>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현황(연령대별)

구 분	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명)	144,623	135	53,812	30,940	15,449	24,049	13,291	6,947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4).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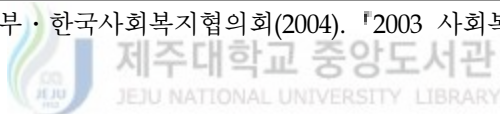
위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0대에서는 53,812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학생이 포함되는 20대의 경우에는 30,94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직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학생자원봉사 참여인원은 68,1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 전체 자원봉사자 중 학생자원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자원봉사자들을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각각 23,354명과 23,664명으로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생은 18,953명으로서 중·고등학생의 인원보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사회복지분야 학생 자원봉사자 현황(학력별)

구 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인원(명)	68,138	2,167	23,354	23,664	18,953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4).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



우리나라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엄청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식의 기반이나 내용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으로 채택되어진 제도들도 형식화되어 참여자의 동기실추·만족감의 상실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자원봉사개념의 참된 의미를 오히려 훼손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조은주, 1999; 김영호, 1999).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타인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인격적 성숙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세대에 산업화,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파생시킨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의 문제에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재분배 및

유휴인력의 활용 면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자원봉사운동은 놀랄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적 동기나 혹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라는 순수한 의미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 데 비해, 복지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효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도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자원봉사를 생산적 봉사, 공익적 봉사, 그리고 공동체적 봉사로 규정하여 전도민의 실천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김성준, 1998).

그러나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중·고등학생의 학생봉사활동과 대학의 사회봉사의 참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지침이 부족한 상태이다. 무조건 참여하기만 한다고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참여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의무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을 참여했던 세대인 현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시절 학생봉사활동의 만족도와 대학생 시절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봉사활동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로 진학한 이후 대학생 시절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고,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원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시절 학생봉사활동 참여 영역과 영역의 결정 주체,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을 통한 고등학교 시절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여부, 자

원봉사활동 미참여 요인,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결정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 제2절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조사연구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을 선정하여 지역간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역별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중단과 지속 등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을 선택한 이유에는 차이점과 공통점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차이점에서는 두 지역이 육지 지역과 섬 지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 내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통점에서는 두 지역이 다양한 축제 및 관광지역, 그리고 각종 국·내외 회의 등이 개최되는 점과 해양도시로서의 공통점을 가짐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총 809명으로서, 부산지역 대학생 404명, 제주지역 대학생 405명이었다.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 활용된 대상자는 불성실 설문지 응답자 5명을 제외한 80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의 이론적 기초 및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에 연구되어진 논문과 단행본을 통한 문헌조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여했던 학생봉사활동 및 대학생 시절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미참여 요인을 알아보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기기입식 방식을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졌다. 첫째,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

한 질문, 둘째, 고등학교 시절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질문, 셋째,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문, 넷째,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에 경험한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 질문이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방법

조사기간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대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전공계열별을 기초로 하여 비비율적 층화 표집방식을 통해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에 활용된 통계방법으로는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미참여 요인, 참여결정요인, 참여동기요인 등과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인식도 등에 있어서의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chi^2$ 검증, 그리고 성별 및 지역별에 따른 집단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다.

### 4.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지역간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첫째, 지역간 대학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시절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시절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등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가설로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지역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 지역간 고등학교 재학시절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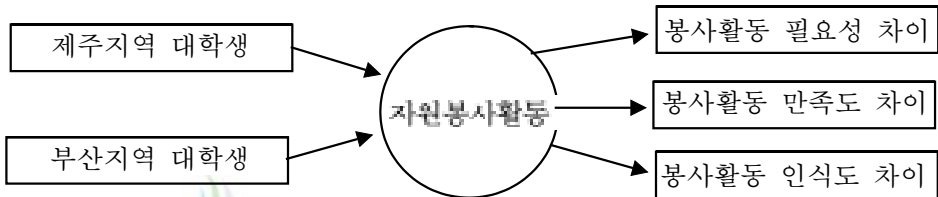
연구가설 :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 지역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식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인식도가 높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통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질문지를 사용한 자기기입식 자료수집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대학생의 참여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어 실제 상황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이 대학 재학생에 한정되어 전체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학자에 따라, 활동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의 형태 속에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이웃을 돕는 활동으로서 삼한시대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했던 계, 신라시대 두레 등이 있어 시대에 따른 이러한 풍습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는 조선시대 말기인 1903년 YMCA 창립을 계기로 전개되었던 사회개량운동, 그 후 1960년대 인도주의와 자원봉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적십자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었다(교육부, 2001).

조하래(1996)는 자원봉사(voluntary)는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 능력 및 자원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물질적 보상 없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준(1998)은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를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적 일시적 활동이 아닌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과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속적인 활동이며, 개인간 또는 조직간에 연대가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사회사업사전의 자원봉서관리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욕구가 인식되어졌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혜나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Dunn, 1995).

영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직

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유스런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Sheard, 1995).

맨서(Gordon Manser)와 캐스(Rosemary Huggins Cass)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원봉사활동 기관을 통하여 활동 창조 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또 공익의 이익요소를 증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 사적 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봉사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였다(Manser & Cass, 1987; 김종오, 2003에서 재인용).

## 2.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이론

자원봉사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욕구 충족의 측면과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동기부여는 ① 욕구나 욕망, ② 행동이나 활동 ③ 인센티브 혹은 목표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욕구나 욕망은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 지향적 행동의 이유가 되며, 목표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물, 인간 혹은 활동이 될 수 있다.

동기유발과 관련된 이론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은 매슬로우(Maslow)욕구이론,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헤르츠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이 자원봉사 활동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동기이론이다.

김성준(2004)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수단'과 '목적' 지향적 동기로 나누어 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수단 지향적 동기이론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이라는 믿음의 동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목적 지향적 동기이론은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와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1) 욕구이론

매슬로우(Maslow)에 따르면 인간 개개인은 피라미드 형태로 정돈된 다섯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욕구의 충족이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들 욕구는 ① 신체 생리적 욕구, ② 안전욕구, ③ 사회적 욕구, ④ 존경(자아존중감)의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로 계층화된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가지는 욕구 수준에 따라 적절한 동기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정과 사랑이라는 사회적 욕구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욕구단계별로 자원봉사자의 배치유형을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김성준(2004)은 Maslow의 5단계 욕구 중 자원봉사자의 목적 지향적 동기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설명하고 있다.

<표 2-1> 욕구단계별 자원봉사자 배치 유형

잠재적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배치 유형	충족될 수 있는 욕구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능력 혹은 재능이 있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기실현의 욕구
다른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절하 되거나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보상받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며, 주목을 끌 수 있는 기회	존경(자아존중감)의 욕구
외로움을 느낌	타인과 만나고 사귄 수 있는 기회	애정의 욕구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새로운 작업기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	안정 혹은 안전의 욕구
저소득임	무료의 음식을 제공받을 기회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생리적 욕구

출처 : Meneghetti, Milena m., 1995; 류기형. 2004에서 재인용.

## 2) XY이론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념을 주장한 맥그리거는 훌륭한 인간관리의 전제조건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념, 즉 정확한 인간관의 확립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인간관을 X이론이라 하고, 현대적 인간관을 Y이론이라고 부르면서 양 이론의 주요한 가정을 <표2-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X이론의 가정과 동기부여 방법은 운명적이고 통제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부적당할 수밖에 없고, 한편 Y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덜 집권화 시킬 것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와 지시를 강조하며, 또한 상상력, 진실성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본다.

<표 2-2> XY이론에 따른 인간관

X이론(전통적 인간관)	Y이론(현대적 인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 태만하고 가능한 한 일을 회피함</li> <li>● 야망이 없고 책임지기를 싫어함</li> <li>●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며 창의력이 부족함</li> <li>● 변화에 저항함</li> <li>● 생리적·안전적 수준에서 동기부여됨</li> <li>● 인간은 통제와 강제의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을 놀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생각함</li> <li>● 목표달성을 위한 자기통제가 가능함</li> <li>● 수동적인 성향을 지닌 것은 아님</li> <li>● 변화에 저항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음</li> <li>● 친화, 자존, 자기실현의 수준에 동기부여됨</li> <li>● 자율성, 창조성을 지님</li> </ul>

## 3)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란 성과와 업적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반대로 낮은 사람은 자기개발과 적극성과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성격에 따라 성취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맥클리랜드는 개인의 욕구 가운데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McClelland, 1961).

①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란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마음, 물질인간사상을 지배·조정·관리하려는 마음, 그러한 일들을 신속히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내

려는 마음, 장애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는 마음, 자신을 한층 탁월하게 만들고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자신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려는 마음이다.

② 친교욕구(need for affiliation)는 다른 사람과 친근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를 말한다.

③ 권력욕구(need for power)란 타인에게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성취욕구를 가진 자원봉사자에게는 도전적인 문제해결의 과업 즉, 기금모금, 회원모집 캠페인, 연구와 분석활동, 리포팅, 회장단이나 리더십 지위 획득의 기회제공, 운영이사회 가입 등을, 친교욕구를 가진 사람은 새롭고 만족할 만한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즉 접수계원, 환영위원회, 축제위원회, 바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과업을, 권력욕구를 가진 자는 통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나 권위 즉, 공적연설, 뉴스 사설 쓰기, 명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가져오는 이벤트 주관 혹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과업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 4) 동기위생이론

헤르츠버그는 인간에게는 상호 독립된 두 종류의 욕구 범주가 있는데, 이들은 인간행동에 각각 상이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는 경우는 일 자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와 관련된 요인을 위생요인(hygiene factors)으로, 후자는 동기부여 요인(motivators)으로 불렀다. 이들 두 요인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3>과 같다(Herzberg, 1968).

위생요인은 한편으로 소극적인 동기부여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들 요인 자체가 동기유발 요인은 되지 않으나 이들이 결여되면 일을 떠나게(예 : 자원봉사활동의 중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동기유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불만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활동의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적(위생적)조건을 구비한 후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표 2-3> 위생요인과 동기부여 이론

위생요인	동기부여 이론
조직의 정책과 행정	업무성취
지도감독	성취에 대한 인정
대인관계	업무자체
보상	책임감
업무조건	발전
지위	성장

자원봉사의 역사와 전통이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체계가 미숙한 상황에 있으며 실천에 있어서도 토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자원봉사의 오랜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당면과제는 증가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의 요구에 대응하여 과거에 지녀왔던 자원봉사에 대한 막연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휘일, 2000).

### 3.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자원봉사활동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 실시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며, 누구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무보수성, 사회공익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발성이란 자신의 의사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거나 강압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무보수성이란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것과 상반되는 말로 자원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해 금전적 보수가 따르지 않음을 뜻한다. 세 번째, 사회공익성이란 자원봉사활동이 인간사회의 공동선의 발전에 목적을 두는 것이며 즉 이는 인간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활동임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특성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은 개개인 스스로가 한 사람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성에 그 기초

를 두고 있으며, 국가나 시 행정에 의해 미처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는 시민 생활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선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성 이외에 사회적 공익성과 경제적 무상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선의 추구하고 평등이라는 테마 아래에서 상호공존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봉사점수 확보를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있어서 공익성은 개인의 이익과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채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기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어 평등과 존엄보다는 차별성과 개인주의가 봉사활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에 대한 지향이자 의지의 자세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 없이는 기본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자원봉사의 공익성과 무상성은 학업 우선주의에 밀려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제2절 청소년 자원봉사 현황

###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대두 배경

청소년 자원봉사는 국가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 육성정책이라는 관점과 청소년 교육정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육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도록 하는 청소년 활동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실천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의 하나이다(문화관광부, 2004).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개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충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문제를 청소년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가 대두된 배경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체의식에 입각한 민간단체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이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 중의 하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라 볼 수 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9개의 정책과정 중의 하나인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이를 반영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학생자원봉사활동 유형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4> 교육부 지정 7개 학생 자원봉사활동 유형

영역	활동내용
1. 일손돕기활동	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농어촌 학교 내 일손돕기
2. 위문활동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자매부대 위문
3. 지도활동	동급생, 하급생, 사회교육, 교통안전 지도
4.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확립,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보전 캠페인
5. 자선,구호활동	재해 구호, 불우이웃돕기, 헌혈-골수 기증, 국제협력-난민구호
6. 환경,시설보전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문화재 보호
7. 지역사회개발활동	지역실태조사, 지역사회 가꾸기, 지역홍보, 지역행사 지원

##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

청소년 자원봉사 조정기관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사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시·도에 설치, 운영되는 지방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교환은 물론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을 총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김범수 외, 2004).

이러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97년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0호로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6년 중앙의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여 1997년도에는 9개 도 단위 지역과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중앙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시·도 단위 1개소씩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1996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개소된 이후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활동현황과 봉사활동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2-5>와 <표 2-6>와 같이 나타난다. 2002년 한해 동안 시·도 센터를 통한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282,256명이 봉사활동을 하였고, 고등학생은 382,828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대학생도 23,740명 등이 봉사활동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현황(2002)

구 분	합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 타
인 원(명)	730,539	282,256	382,828	23,740	36,885

출처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표 2-6>과 같이 1996년 이후의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봉사활동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996년에 94,742명에서 1998년에는 251,092명, 2000년에는 544,848명, 그리고 2002년 730,53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0년 이

후부터는 연간 약 50여만명 이상으로 지속되었고, 2002년에는 70만명 가량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연도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운영실적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명)	94,742	118,053	251,092	413,698	544,848	506,797	730,539

출처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 제3절 대학생 자원봉사 현황

#### 1. 대학생 자원봉사의 의의 및 필요성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8조). 이러한 대학교육의 이념과 기능을 실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와 실험실습의 지도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3대 기능 중에 하나이다. 특히 실용주의적 입장에 있는 미국의 경우, 사회봉사를 강조하며 발전하였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교육이론과 윌리엄 킬패트릭(William Kilpatrick)에 의한 진보적 교육운동 등 일련의 경험과 실습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개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같은 교육개혁의 경험을 겪어 오면서 미국 대학들은 1970년대에 와서는 정규교과에 자원봉사를 접목시켜 보다 실용적인 대학교육을 실험하는 일대 교육개혁을 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개혁의 시각에서 대학은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기보다는 교수, 연구, 사회봉사의 3대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멀티버시티(multiversity)로 이해되고 있다. 이제 미국 대학은 캠퍼스 울타리에 갇힌 상아탑이 아니라 캠퍼스 밖의 사회,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적극적인 대학, 즉 트랜스버시티(transversity)로 표상되고 있다(최일섭 외, 1996).

대학 자원봉사의 3가지 기본적인 목적은 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② 시민으로서의 기술과 사회적 책임감 및 학문적 능력을 강화하며, ③ 학생들에게 양



적·질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이성록, 2000).

사회봉사교육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들이 표방하는 교육이념은 사회정의, 책임감, 시민의식, 정신적 성장, 공동선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대응 등이다(최일섭 외, 1996). 이러한 대학교육의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현외성은 대학 자원봉사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지적하고 있다(현외성 외, 1998).

#### 1) 장래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형성

대학생은 장차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치에 있다. 학문적 지식은 물론 인격적 역량에서도 다른 삶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시절 사회봉사활동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사회문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전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 2) 전문기술의 적용과 연마

대학은 전문기술과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각자가 자기 전공에서 학습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주민을 돕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는 학습의 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면 더욱 유익할 수 있다.

#### 3)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책임과의 체득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거나 혹은 가치관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문제의 배경에 대한 시야를 갖출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할 수 없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다.

####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5) 성숙한 자아의 형성

학생들은 사회봉사활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게 되고 사람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진보적이며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의식구조를 갖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이다. 또한 이 세대는 전문적 지식 이외에도 왕성한 체력과 시간적, 정서적 여유를 갖추어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적합한 때이다. 이러한 지적·정신적·육체적인 장점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효과로서 안수향(1993)은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과 협력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취미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 넷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부하게 한다. 여섯째,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일곱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의 만족한 체험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건전한 이탈행동을 예방한다(권해조, 1987).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안수향(1993)이 정리한 일곱 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장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바는 대학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인식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고등교육에 있어 교육의 시설적인 모범답안은 대학교육에 있다는 것이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양적 증가로 증명해 주고 있다(물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는 현실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치는 하나의 시기적 과정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있는 인간은 지적·정신적·육체적인 능력이 사회인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평균적인 장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대학이 공통분모의 위치에 있으며 그 시기의 인간이 가진 능력이 사회적으로 유효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파괴력을 의

미한다. 이러한 파괴력은 대학교육을 이수한 세력이 미래 사회의 문화적 Paradigm의 형성 및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세력이라 볼 수 있다.

## 2. 각국의 대학생 자원봉사 현황

### 1) 미국의 대학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활동은 세계 각국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어 있다. 199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원봉사를 공공정책(public policy)으로 수용하고 제도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류기형 외, 2004).

하버드 대학이나 컬럼비아 대학 등 명문 사학들이 자원봉사 경력을 입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사회봉사센터와 같은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히 100년 전통의 하버드 대학의 '필립스 부룩스 하우스(Phillips Brooks House)'는 10명의 상근 직원과 연간 170억 원 예산을 운용하는 미국 대학 중 최대의 자원봉사 센터이다. 이 센터에서 마련한 8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만도 2천여 명으로 6천여 명의 학부생의 1/3에 해당되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이창호, 1995)

전국의 대학들이 가입한 연맹조직인 대학자원봉사연합회의회(Campus Compact)에는 현재 305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어 14만 명의 대학생들이 주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COOL(Campus Outreach Opportunity League)에는 650개 대학이 가입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이강현, 1994).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훈련된 인력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연구나 강의와 긴밀히 관련되어 대학 행정가들이 사회요구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나 대학의 기본 기능에 해로운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대학 자원이 사회요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지배적 경향이다. 또한 연구나 강의 못지 않게 대학이 사회의 중요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용주의 문화의 미국의 경우가 가장 강하다(표시열, 1993).

미국의 대학생들은 1970년대 말부터 도시의 빈곤문제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기 시

작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풀어 가자는 호소와 함께 일기 시작한 자원봉사의 역기와 더불어 학생들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도시의 빈곤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으로 1984년 ‘전국대학생자원봉사연합회(COOL : Campus Outreach Opportunity League)’를 결성하였다.

현재 1,200여 대학이 가입하여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이 단체는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봉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능력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① 학생들의 사회의식 양성과 의사표현 ② 양질의 지역사회봉사 ③ 사회개혁 ④ 관용과 통합이라는 4가지 가치를 모든 프로그램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또한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연대활동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대학 당국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브라운대학의 스웰러(Sweater)총장 주도로 대학 총장들이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돕고 봉사활동과 학문간의 연계를 이루는 연구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소위 콤팩트(Campus Compact)를 설립하여 현재는 500여개의 대학들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의 이론과 개발내용, 그리고 봉사활동의 기획확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캠퍼스 콤팩트는 “만일 지역사회봉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대학의 학문적 사명에 연관되어야 한다”는 연구조사 결론에 따라, 1990년부터 봉사와 학습이 통합된 교과과정을 500여개 개발하였다.

## 2) 일본의 대학 자원봉사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증가, 맞벌이 부부 증대, 도시화, 산업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복지용구가 창출되고 기존의 전문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재가서비스의 요청과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있어 일탈 현상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교육의 일환으로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제도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이 중, 고교생 자원봉사를 교육의 일부로 파악, 입시 내신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93년부터 42개의 고등학교가 입학원서에 자원봉사활동란을 신설하여 중학교 시절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입학 사정 시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들도 대학입학 사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중앙일보 자원봉사 사무국, 1995).

일본은 지난 1997년부터 문부성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 협력교라는 자원봉사 육성 시범학교가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 자원봉사 협력교는 그 지정 기간이 3년으로 구. 동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추천하면 도·도·부·현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지방 정부와 상의해 지정, 통지한다. 협력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방정부 복지부로부터 연간 10만 엔씩의 자원봉사 조성금을 지급 받는다.

이 자원봉사 협력교는 학생들을 관내 불우아동, 장애인, 노인 가정 및 시설들에 파견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교내에서 비디오, 영화상영, 강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 학생들의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밖에 학교신문을 통한 모금, 홍보, 자원봉사 축제, 장애인 체육대회, 지역인 초청 학예회, 집단 회식 등의 사업을 펴고 지역 내 고령자수, 사회복지 자원, 하천수질, 난민들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한다. 즉, 교내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원봉사를 하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일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이처럼 고입. 대입 시의 내신 반영을 통 추해 사회적 강요와 함께 지역사회 단위로 정부, 사회복지협의회, 학교 등이 혼연일체가 된 시범학교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대학 자원봉사

우리나라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이 본격화 된 시기는 1990년대 초이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대학들의 봉사학습 시스템 도입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94년 중앙일보의 자원봉사캠페인을 시작으로 한양대가 국내 대학 처음으로 사회봉사 교양필수 과목을 채택하였으며(1994. 7). 이후 동덕여대의 자원봉사 교양 필수 채택. 건국대의 교내 자원봉사는행 신설과 고입 내신에 자원봉사 반영 발표,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 기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대학별 사회봉사단의 출범과 사회봉사센터의 설립은 대학 자원봉사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연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서 1996년 전국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학자원봉사연합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류기형 외, 2004).

그러나 1990년대 이전의 대학의 자원봉사란 학생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5년 일부 대학에서 봉사학점제를 채택하여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대학 당국의 사회봉사 활동 추진과 교육부의 5·31 개혁조치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게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학생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학교당국과 교육부의 정책에서 시작되었다(선우현, 1998).

1998년 4월 현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 172개 대학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역할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육성 발전과 대학 교육과정과 자원봉사연계에 관한 연구,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지원,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타 회원 대학 상호간의 협의조정 등으로 정부와 정책 연계, 지원, 기업과 봉사현장 연계, 지원 봉사기관과 봉사처 선정, 봉사 연계를 유도하여 상호간 협조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 및 교과목 개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연계 봉사활동 권장,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 자원봉사활동에 공헌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대학생들의 순수자원봉사활동 유형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자원관리 하기 위한 담당 부서(주로 사회봉사센터 또는 학생과 부속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소속되거나 기타 학생들 자체의 동아리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대학별로 소속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필수 학점화 하고 자원봉사담당 부서로 하여금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토록 하는, 즉 졸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봉사활동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유형으로서 현재 서울과 지방의 몇몇 소수의 대학과 전문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채택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봉사활동을 교양·일반 또는 전공 선택으로 채택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유형으로서 앞의 두 가지 유형에 비하

여 비교적 많은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발족 이후에야 대학 내에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또한 교과과정에서도 자원봉사이론 또는 실습과목을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세 번째 유형이 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같은 이유에서 가장 많은 수의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들은 우리사회에서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들의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겠으나 첫 번째 유형 즉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을 최근에 와서야 대학사회에서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유형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유로 이들 간의 장단점과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존연구 문헌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중단관련 연구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관련 있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중단관련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자원봉사자들의 빈번한 조기 중단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은 모집하는 것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조기중단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데 대부분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봉사활동에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자원봉사에의 지속적인 참여 혹은 중도탈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조휘일, 1990)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개인적 배경과 성격, 속성 및 사회·문화적 영향으로서의 가족 및 친족의식이 포함되며, 둘째, 동기적 요인으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자극하는 동기 또는 욕구가 포함되며, 그리고 셋째, 조직 및 기관요인으로서 업무만족과 지도감독 등이 포함된다. 이들 변인들 중에서 특히 개인적 특성은 자원봉사자를 유형화하여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 1. 자원봉사 지속요인 관련 연구

장윤숙(2001)은 자원봉사활동 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한 결과, 참여 동기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각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종교유무, 결혼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의 참여형태, 자원봉사에 대한 기대합치도, 자원봉사교육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값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자원봉사교육정도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과 자원봉사 참여형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과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현황을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45.5%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속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는 62.0%가, 높은 집단의 경우는 17.0%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지은(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개인적 특성인 자원봉사 경험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과는 상관관계가 있고, 성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률이 높음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과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 중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고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귄 수 있는 기회, 개인적인 성장,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타적인 요소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욕구나 가치관등이 달라짐에 따라 점차로 이기적인 측면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여형태에서는 동아리나 소집단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에 영향을 준다. 셋째, 조직특성요인 중 봉사업무가 잘 맞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자 하고, 자원봉사의 업무의 배치, 업무의 인정, 봉사활동의 평가, 동료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지속하고자 하고 싶어 한다.

김용선(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있어서 개인 및 학교, 그리고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자의 관계성과 신념, 그리고 학교의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와 활동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속성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는 개인의 입장에서 '적성에 맞지 않음'과 '기관 및 대상자와의 관계 불편'



이라는 요인이 학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교육과 프로그램', '행정적 지원'의 미흡함을 봉사활동기관과 관련되어서는 뚜렷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특히 1984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현대사회연구소의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조사 연구」 등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중도탈락 즉 지속성의 문제를 중요한 현안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지속성 또는 지속적 참여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성 탐색연구(권순미, 2000)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한수정, 1999),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지속성 관리 및 봉사활동 중단요인에 관한 연구(이수영, 1990; 모옥희, 199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려는 연구(김상옥, 1990; 권지성, 1998; 박정희, 1994; 이영희, 2000; 이재선, 2000) 등이 있다.

## 2. 자원봉사 중단요인 관련 연구

기존의 자원봉사자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 자아개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이주재, 2001).

우태주(1999)는 집단별 자원봉사활동의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세가지 범주의 변인(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기관 특성)으로 나누어 중고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 집단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중도탈락행동을 살펴보았다. 집단별 자원봉사 중도탈락에 어떠한 요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집단이라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개인, 가족, 기관변인 중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희(199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취업이나 결혼, 건강 등 자원봉사자의 개인사정이 전체의 30.9%이며, 다음으로 시간을 너무 빼앗겨서가 28.7%, 기대했던 것만큼 보람을 못 느껴서가 20.2%,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7%, 활동기관 직원의 무관심과 불쾌한 태도 4.3%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혜경(1998)의 지속자와 중단자의 참여 동기 비교에서 지속자는 중단자에 비해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중단자는 지속자에 비해 사회, 심리적 동기와 자기 지향적 동기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며,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강도와 만족도 비교에서는 중단자의 경우 대부분 단일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자는 2가지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시간은 1가지 업무당 보통 4시간 내외로 지속자가 더 긴 시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중단자에 비해 참여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자와 중단자는 모두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특히 지속자는 중단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며, 중단자는 불만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과 중단 즉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 그 요인이 개인적인 것이든, 기관에 의한 요인이든 기관의 직원들보다는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선들러와 리피트(Schindler-Rainmain & Lippitt, 1971)는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중단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는 모집자가 주는 비현실적인 기대인데, 이것은 후에 동기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요인은 클라이언트나 동료들로부터의 적절한 피드백(Feedback)의 부족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성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와의 인간관계도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담당자의 일방적인 업무배치나 지도감독의 소홀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수행중인 일이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자신이 2급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사기와 그 활동 조건이다. 만약 맡은 업무가 중요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자원봉사자들의 동기와 실천의 많은 부분이 기관의 담당자와 협조자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달려 있고 또 기관관의 정책과 행동, 심리적 분위기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높은 중도 탈락율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및 중단을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및 기존 자원봉사자 관리 방안 및

자원봉사활동 관리방법의 부적합성 역시 자원봉사활동의 높은 중도탈락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제 3 장 연구결과 분석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조사응답자는 총 804명으로서, 대상자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이 372명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32명으로 53.7%를 차지해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대학 3학년이 223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학년이 204명(25.4%), 2학년이 194명(24.1%), 1학년이 183명(22.8%)으로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804)

변수명	변수값	사 례 수(명)	비 율(%)
성 별	남성	372	46.3
	여성	432	53.7
학 년	1학년	183	22.8
	2학년	194	24.1
	3학년	223	27.7
	4학년	204	25.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54	56.5
	자연·이공계열	250	31.1
	예·체능 계열	100	12.4
종 교	기독교	172	21.4
	천주교	116	14.4
	불교	244	30.3
	없다	260	32.3
	기타 종교	12	1.5
지 역	제주지역	400	49.8
	부산지역	404	50.2

대상자의 대학 전공계열별 분포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454명으로 5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자연·이공계열이 250명(31.1%),

예·채능계열이 100명(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별 분포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260명(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불교 244명(30.3%), 기독교 172명(21.4%), 천주교 116명(1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이 400명으로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대학생은 404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조사대상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시 봉사활동 분석

### 1. 고등학교 재학시 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 사항

조사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했던 영역에 대한 응답자료를 다중응답으로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1인당 평균적으로 1.5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영역으로는 일손돕기 활동영역으로 전체응답자(1230명)의 28.9%가 참여하였으며, 유효응답자(799명) 중 44.4%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환경·시설 보전 활동(24.0%), 위문활동(17.2%), 그리고 캠페인 활동(13.3%), 자선구호활동(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조사응답자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영역에 대한 응답(n=804)

변수명	봉사활동영역	사례수(명)	사례비율(%)	응답비율(%)
봉사활동 영역	일손돕기 활동	355	28.9	44.4
	위문활동	212	17.2	26.5
	캠페인 활동	164	13.3	20.5
	자선구호 활동	84	6.8	10.5
	환경·시설 보전 활동	295	24.0	36.9
	지도 활동	50	4.1	6.3
	지역사회개발 활동	70	5.7	8.8
총	계	1230	100.0	153.9

무응답 : 5명, 유효응답사례 : 799명

조사응답자들의 고등학교 재학시 봉사활동 영역의 결정을 누가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375명(46.6%)의 응답자가 학교 선생님이 결정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37명(4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 43명(5.3%)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결정은 학교 선생님이나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을 받았다가 29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08명(63.2%)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응답자 중 봉사활동교육을 절반 이상이 받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교육을 받은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296명 중 206명(69.6%)은 학교에서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81명(27.4%)은 봉사활동기관에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교육보다는 현장감이 있는 봉사활동 지도자에 의한 교육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표 3-3> 조사응답자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응답(n=804)

변수명	변수값	사례수(명)	비율(%)
봉사활동 영역 결정주체	학교선생님	375	46.6
	부모님	43	5.3
	자기자신	337	41.9
	기타	49	6.1
봉사활동 교육유무	있다	296	36.8
	없다	508	63.2
봉사활동 교육장소	학교	206	69.6
	봉사활동기관	81	27.4
	기타	9	3.0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학생 자신의 평가만 있었다	159	19.8
	교사의 평가만 있었다	156	19.4
	학생자신과 교사의 평가가 같이 있었다	176	21.9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148	18.4
	잘 모르겠다	165	20.5

고등학교 시절 참여했던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동시에 있었다가 176명으로 21.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 자신만의 평가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159명(19.8%)이었으며, 교사의 평가만 있었다는 응답자는 156명(1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148명(18.4%)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65명(20.5%)인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의 봉사활동을 기억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참여했던 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적 성취감에 대한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 개인적 성취감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712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감을 알아본 척도는 전체 7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아래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봉사활동은 본인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현실과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은 장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연령층, 다른 가치관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동하는 가운데 이웃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은 여가시간을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등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각의 문항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조사응답자의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n=804)

(단위: 명, %)

문항	총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봉사활동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804 (100.0)	21( 2.6)	64( 8.0)	277(34.5)	408(50.7)	34( 4.2)
본인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8( 2.2)	83(10.3)	355(44.2)	319(39.7)	29( 3.6)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10( 1.2)	72( 9.0)	282(35.1)	377(46.9)	63( 7.8)
장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25( 3.1)	80(10.0)	281(35.1)	351(43.7)	67( 8.3)
여러 연령층, 다른 가치관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동하는 가운데 이웃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22( 2.7)	68( 8.5)	271(33.7)	362(45.0)	81(10.1)
본인의 여가시간을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4( 4.2)	127(15.8)	348(43.3)	262(32.6)	33( 4.1)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등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9( 4.9)	110(13.7)	328(40.8)	282(35.1)	45( 5.6)

## 2.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일반적 사항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73명(5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96명(24.4%), 필요 없다 또는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9명(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76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83.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대



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3-5>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응답

변수명	변수값	사례수(명)	비율(%)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17	2.1
	필요없다	42	5.2
	필요하다	473	58.8
	매우 필요하다	196	24.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6	9.5
총	계	804	100.0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1.8%인 1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봉사활동을 하였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절반이상인 423명(5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된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조사 시점인 현재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6명(25.6%)으로서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8.2%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표 3-6>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변수명	변수값	사례수(명)	비율(%)
자원 봉사 활동 참여	대학생이 되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423	52.6
	대학생이 된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206	25.6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13	14.1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62	7.7
총	계	804	100.0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학교 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7>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변 수 명	변 수 값	사례수(명)	비율(%)
자원봉사 활동 미참여 이유	학교공부 때문에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06	16.9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74	27.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5	11.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33	5.2
	기 타	41	6.5
합 계		629	100.0

전체 응답자 629명 중 200명(31.8%)이 학교공부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74명(27.7%)이며, 다음은 취업 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06명(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75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일반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생봉사활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8>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중단 이유

변 수 명	변 수 값	사례수(명)	비율(%)
대학시절 자원봉사 활동 중단 이유	학교공부 때문에	78	37.9
	취업준비 때문에	54	26.2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38	18.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1	5.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11	5.3
	기 타	14	6.8
합 계		206	100.0

그리고 대학생이 된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6명의 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단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공부 때문과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64.1%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생들은 학교공부와 취업준비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72명 (4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결정에 미친 요인

변수명	변수값	사례수(명)	비율(%)
대학시절 자원봉사 활동 참여 영향	본인 스스로의 판단	72	41.1
	학교 동아리 활동	52	29.7
	학교 친구(선배 및 후배 등)	23	13.1
	행정기관 및 봉사단체의 홍보	14	8.0
	종교 단체	11	6.3
	기 타	3	1.7
합 계		175	100.0

다음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2명(29.7%)이었으며, 학교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3명(1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175명 중 65명(37.1%)이 자기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57명(32.6%)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19명, 10.9%),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13명 (7.4%),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11명, 6.3%)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변수명	변수값	사례수(명)	비율(%)
대학시절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57	32.6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3	7.4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11	6.3
	자기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65	37.1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19	10.9
	종교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4	2.3
	기 타	6	3.4
합 계		175	100.0

### 제3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관계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분석

여기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 대학생의 경우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가 남성 대학생 전체 372명 중 19명(5.2%)이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0명(2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필요하더라는 응답으로서 224명(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학생의 경우에도 남성 대학생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가 여성 대학생 전체 432명 중 40명(5.2%)이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6명(2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필요하더라는 응답으로서 249명(57.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 < .05$ )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 대학생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대학생에서는 학교 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

(단위: 명,(%))

구 분		성별		합계
		남	여	
대학 봉사활동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8( 2.2)	9( 2.1)	17( 2.1)
	필요없다	11( 3.0)	31( 7.2)	42( 5.2)
	필요하다	224(60.2)	249(57.6)	473( 58.8)
	매우 필요하다	100(26.9)	96(22.2)	196( 24.4)
	생각해 본 적 없다	29( 7.8)	47(10.9)	76( 9.5)
합 계		372(46.3)	432(53.7)	804(100.0)

$\chi^2=10.831$ ,  $df=4$ ,  $p<.05$

세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 대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남성 대학생 전체 372명 중 193명(51.9%)이었으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79명(48.1%)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여성 대학생 전체 432명 중 244명(56.5%)이었으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8명(43.5%)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대학생은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대학생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5$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단위: 명,(%))

구 분		성 별		합 계
		남	여	
봉사활동 경험유무	경험 무	179(48.1)	244(56.5)	423( 52.6)
	경험 유	193(51.9)	188(43.5)	381( 47.4)
합 계		372(46.3)	432(53.7)	804(100.0)

$\chi^2=5.607$ ,  $df=1$ ,  $p<.05$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 대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남성 대학생 전체 282명 중 92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78명(27.7%),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8명(17.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3명(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 성별에 따른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원인

(단위: 명,(%))

구 분		성별		합 계
		남	여	
대학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78(27.7)	122(35.2)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48(17.0)	58(16.7)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92(32.6)	82(23.6)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23( 8.2)	52(15.0)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19( 6.7)	14( 4.0)	33( 5.2)
	기 타	22( 7.8)	19( 5.5)	41( 6.5)
합 계		282(44.8)	347(55.2)	629(100.0)

$\chi^2=16.851$ ,  $df=5$ ,  $p<.01$

여성 대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

답한 응답자가 여성 대학생 전체 347명 중 122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82명(23.6%),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8명(16.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2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대학생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대학생에서는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와 같이 지역별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대학생의 경우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가 제주지역 대학생 전체 400명 중 13명(3.3%)이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2명(2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필요하더라는 응답으로서 255명(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지역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

(단위: 명,(%))

구 분		지역		합 계
		제주지역	부산지역	
대학 봉사활동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2( 0.5)	15( 3.7)	17( 2.1)
	필요없다	11( 2.8)	31( 7.7)	42( 5.2)
	필요하다	255(63.8)	218(54.0)	473( 58.8)
	매우 필요하다	102(25.5)	94(23.3)	196( 24.4)
	생각해 본 적 없다	30( 7.5)	46(11.4)	76( 9.5)
합 계		400(49.8)	404(50.2)	804(100.0)

$\chi^2=26.035$ ,  $df=4$ ,  $p<.001$

부산지역 대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이 부산지역 대학생 전체 404명 중 46명(11.4%)이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4명(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필요하더라는 응답으로서 218명(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대학생과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와 같은 응답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3.3%에 불과한 반면,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응답은 11.4%로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구문제 1의 연구가설(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이다)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대학생들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5>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주체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대학生の 경우 고등학생 시절의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주체에 있어서 교사의 단독평가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제주지역 대학생 전체 400명 중 86명(21.5%)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생과 교사 공동평가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4명(18.5%), 평가가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3명(18.3%)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대학生の 경우 고등학생 시절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주체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공동평가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부산지역 대학생 전체 404명 중 102명(25.2%)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생의 단독평가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2명(22.8%), 평가가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5명(18.6%), 교사의 단독평가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0명(17.3%)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의 단독평가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시 학생과 교사의 공동평가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교사단독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부산지역은 학생의 단독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지역별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주체

(단위: 명,(%))

구 분		지역		합 계
		제주지역	부산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학생 단독 평가	67(16.8)	92(22.8)	159( 19.8)
	교사 단독 평가	86(21.5)	70(17.3)	156( 19.4)
	학생과 교사 공동평가	74(18.5)	102(25.2)	176( 21.9)
	평가 없었음	73(18.3)	75(18.6)	148( 18.4)
	잘 모르겠다	100(25.0)	65(16.1)	165( 20.5)
합 계		400(49.8)	404(50.2)	804(100.0)

$\chi^2=17.458$ ,  $df=4$ ,  $p<.01$

<표 3-16>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제주지역 대학생 전체 302명 중 100명(33.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75명(24.8%),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41명(13.6%),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 40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

(단위: 명,(%))

구 분		지역		합 계
		제주지역	부산지역	
대학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75(24.8)	125(38.2)	200(31.8)
	취업준비 때문에	41(13.6)	65(19.9)	106(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100(33.1)	74(22.6)	174(27.7)
	필요성을 못느껴	40(13.2)	35(10.7)	75(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18(6.0)	15(4.6)	33(5.2)
	기 타	28(9.3)	13(4.0)	41(6.5)
합 계		302(48.0)	327(52.0)	629(100.0)

$\chi^2=26.962$ ,  $df=5$ ,  $p<.001$

부산지역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부산지역 대학생 전체 327명 중 125명(38.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4명(22.6%),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65명(19.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 35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 대학생은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학년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명,(%))

구 분	학 년				합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봉사활동 경험 유무	114(27.0)	99(23.4)	122(28.8)	88(20.8)	423( 52.6)
경험유무	69(18.1)	95(24.9)	101(26.5)	116(30.5)	381( 47.4)
합 계	183(22.8)	194(24.1)	223(27.7)	204(25.4)	804(100.0)

$\chi^2=14.815$ ,  $df=3$ ,  $p<.01$

<표 3-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432명 중 3학년이 122명(28.8%)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1학년 114명(26.7%), 2학년 99명(23.4%), 4학년 88명(20.8%)으로 4학년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 381명 중 4학년이 116명(30.5%)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이 69명(18.1%)로 가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서는 4학년이 가장 낮은 반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서는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에서와 같이 학년별로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이 46명(30.1%)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43명(28.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 29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는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51명(34.9%), 77명(42.8%)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23명(15.8%), 25명(13.9%)으로 나타났다.

<표 3-18> 대학 학년별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

(단위: 명,(%))

구 분	학 년				합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 시절 미 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43(28.1)	51(34.9)	77(42.8)	29(19.3)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7(11.1)	23(15.8)	25(13.9)	41(27.3)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46(30.1)	41(28.1)	41(22.8)	46(30.7)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29(19.0)	13( 8.9)	15( 8.3)	18(12.0)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5( 3.3)	10( 6.8)	14( 7.8)	4( 2.7)	33( 5.2)
	기 타	13( 8.5)	8( 5.5)	8( 4.4)	12( 8.0)	41( 6.5)
합 계	153(24.3)	146(23.2)	180(28.6)	150(23.8)	629(100.0)	

$\chi^2=49.662$ ,  $df=15$ ,  $p<.001$

그리고 4학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6명(30.7%)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1명(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에 있어서 1학년과 4학년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반면, 2학년과 3학년은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학년의 경우에 취업준비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와의 관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성취도의 하위변인은 모두 7개의 변인 중 5개로서,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변인, 본인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변인,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에 대한 이해변인, 장래 직업의 탐색 기회변인 그리고 본인의 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변인으로 나타났다.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 척도는 5점 척도였으나 리코딩(recoding)하여 3점척도로 변경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의 하위 변인인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와의 관계에서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291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3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84명(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학습의 기회로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242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학습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96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5명(26.0%),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24명(2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5$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

(단위: 명,(%))

구 분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9(19.8)	78(32.2)	103(35.4)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24(25.0)	40(16.5)	42(14.4)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25(26.0)	65(26.9)	84(28.9)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7(17.7)	34(14.0)	24( 8.2)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4( 4.2)	13( 5.4)	16( 5.5)	33( 5.2)
	기 타	7( 7.3)	12( 5.0)	22( 7.6)	41( 6.5)
합 계		96(15.3)	242(38.5)	291(46.3)	629(100.0)

$\chi^2=19.299$ ,  $df=10$ ,  $p<.05$

<표 3-2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의 하위변인인 잠재능력 및 소질 활용의 기회와의 관계에서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잠재능력 및 소질 활용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212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 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6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표 3-20>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잠재능력 및 소질활용의 기회)

(단위: 명,(%))

구 분		잠재능력 및 소질 활용의 기회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35(26.7)	89(31.1)	76(35.8)	200(31.8)
	취업준비 때문에	18(13.7)	52(18.2)	36(17.0)	106(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39(29.8)	88(30.8)	47(22.2)	174(27.7)
	필요성을 못느껴	19(14.5)	37(12.9)	19( 9.0)	75(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7( 5.3)	12( 4.2)	14( 6.6)	33( 5.2)
	기 타	13( 9.9)	8( 2.8)	20( 9.4)	41( 6.5)
합 계		131(20.8)	286(45.5)	212(33.7)	629(100.0)

$\chi^2=21.831$ ,  $df=10$ ,  $p<.05$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7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학습의 기회로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286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학습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131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9명(29.8%),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35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5$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지역사회 현실과 문제 이해 기회)  
(단위: 명,(%))

구 분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의 이해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33(20.8)	86(35.1)	81(36.0)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20(12.6)	47(19.2)	39(17.3)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44(27.7)	76(31.0)	54(24.0)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36(22.6)	16( 6.5)	23(10.2)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11( 6.9)	10( 4.1)	12( 5.3)	33( 5.2)
	기 타	15( 9.4)	10( 4.1)	16( 7.1)	41( 6.5)
합 계		159(25.3)	245(39.0)	225(35.8)	629(100.0)

$\chi^2=40.574$ ,  $df=10$ ,  $p<.001$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의 하위변인인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 이해의 기회와의 관계에서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의 이해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225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81명(36.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4명(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리고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 이해의 기회로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245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 이해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159명중에서 현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4명(27.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 36명(22.6%),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33명(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장래 직업탐색의 기회)

(단위: 명,(%))

구 분		장래 직업탐색의 기회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56(24.3)	97(36.1)	47(36.2)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32(13.9)	50(18.6)	24(18.5)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62(27.0)	82(30.5)	30(23.1)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40(17.4)	20( 7.4)	15(11.5)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17( 7.4)	12( 4.5)	4( 3.1)	33( 5.2)
	기 타	23(10.0)	8( 3.0)	10( 7.7)	41( 6.5)
합 계		230(36.6)	269(42.8)	130(20.7)	629(100.0)

$\chi^2=33.554$ ,  $df=10$ ,  $p<.001$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의 하위변인인 장래 직업탐색의 기회와의 관계에서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장래 직업탐색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30명(20.7%)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0명(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대학시절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의 하위변인인 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 기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3>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  
(단위: 명,(%))

구 분		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40(23.8)	85(31.4)	75(39.5)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22(13.1)	48(17.7)	36(18.9)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43(25.6)	88(32.5)	43(22.6)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33(19.6)	25( 9.2)	17( 8.9)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13( 7.7)	13( 4.8)	7( 3.7)	33( 5.2)
	기 타	17(10.1)	12( 4.4)	12( 6.3)	41( 6.5)
합 계		168(26.7)	271(43.1)	190(30.2)	629(100.0)

$\chi^2=32.802$ ,  $df=10$ ,  $p<.001$

고교시절 봉사활동의 경험이 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90명(30.2%)이었으며,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68명(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39.5%)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대학시절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25.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

다음은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이 고교시절의 봉사활동을 기억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참여했던 봉사활동을 통한 만족도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730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을 통한 만족도를 알아본 척도는 전체 7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의 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이 나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 참여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심리적 안정 및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나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각의 문항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5점 척도였으나 리코딩(recoding)하여 3점 척도로 변경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표 3-24>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봉사활동 타인 도움)

(단위: 명,(%))

구 분		봉사활동 타인 도움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5(21.4)	64(27.7)	121(36.9)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9(27.1)	43(18.6)	44(13.4)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17(24.3)	62(26.8)	95(29.0)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1(15.7)	34(14.7)	30( 9.1)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2( 2.9)	13( 5.6)	18( 5.5)	33( 5.2)
	기 타	6( 8.6)	15( 6.5)	20( 6.1)	41( 6.5)
합 계		70(11.1)	231(36.7)	328(52.1)	629(100.0)

$\chi^2=19.812$ ,  $df=10$ ,  $p<.05$

<표 3-24>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 제공기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시절 봉사활동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8명(52.1%),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31명(36.7%),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70명(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39.5%)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64명, 27.7%)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62명, 26.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자원봉사 수혜자의 만족)

(단위: 명,(%))

구 분		자원봉사 수혜자의 만족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7(20.5)	79(27.8)	104(39.7)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5(18.1)	44(15.5)	47(17.9)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23(27.7)	88(31.0)	63(24.0)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4(16.9)	36(12.7)	25( 9.5)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4( 4.8)	18( 6.3)	11( 4.2)	33( 5.2)
	기 타	10(12.0)	19( 6.7)	12( 4.6)	41( 6.5)
합 계		83(13.2)	284(45.2)	262(41.7)	629(100.0)

$\chi^2=22.559$ ,  $df=10$ ,  $p<.05$

<표 3-25>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의 봉사활동으로 만족의 기회 제공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시절 봉사활동이 수혜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62명(41.7%),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84명(45.2%),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39.7%)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88명, 31.0%),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79명, 27.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낌)

(단위: 명,%)

구 분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낌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4(20.9)	66(28.7)	120(36.1)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2(17.9)	39(17.0)	55(16.6)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11(16.4)	66(28.7)	97(29.2)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8(26.9)	35(15.2)	22( 6.6)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4( 6.0)	11( 4.8)	18( 5.4)	33( 5.2)
	기 타	8(11.9)	13( 5.7)	20( 6.0)	41( 6.5)
합 계		67(10.7)	230(36.6)	332(52.8)	629(100.0)

$\chi^2=34.719$ ,  $df=10$ ,  $p<.001$

<표 3-26>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 기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시절의 봉사활동을 통해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낀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32명(52.8%),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30명(36.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120명, 36.1%)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66명, 28.7%),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66명, 28.7%)이 상대적으로

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18명, 26.9%)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시절의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15명(50.1%),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31명(36.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3명(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113명, 35.9%)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71명, 30.7%)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19명, 22.9%)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개인적인 성장의 기회)

(단위: 명,(%))

구 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8(21.7)	69(29.9)	113(35.9)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8( 9.6)	34(14.7)	64(20.3)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23(27.7)	71(30.7)	80(25.4)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9(22.9)	32(13.9)	24( 7.6)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7( 8.4)	10( 4.3)	16( 5.1)	33( 5.2)
	기 타	8( 9.6)	15( 6.5)	18( 5.7)	41( 6.5)
합 계		83(13.2)	231(36.7)	315(50.1)	629(100.0)

$\chi^2=28.925$ ,  $df=10$ ,  $p<.01$

<표 3-28>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개인적인 성취감 기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시절의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38명(53.7%),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16명(34.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5명(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123명, 36.4%)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64명, 29.6%)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개인적 성취감)

(단위: 명,%)

구 분	개인적 성취감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3(17.3)	64(29.6)	123(36.4)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8(10.7)	38(17.6)	60(17.8)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24(32.0)	57(26.4)	93(27.5)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8(24.0)	28(13.0)	29( 8.6)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6( 8.0)	11( 5.1)	16( 4.7)	33( 5.2)
	기 타	6( 8.0)	18( 8.3)	17( 5.0)	41( 6.5)
합 계	75(11.9)	216(34.3)	338(53.7)	629(100.0)	

$\chi^2=26.366$ ,  $df=10$ ,  $p < .01$

<표 3-29>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참여경험으로 개인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계기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시절의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7명(37.7%),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63명(41.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29명(13.2%)인 것으로 나

타났다.

개인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현재 대학 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84명, 35.4%)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86명, 32.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34명, 26.4%)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개인의 새로운 부분 발견 계기)  
(단위: 명,(%))

구 분		개인의 새로운 부분 발견 계기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30(23.3)	86(32.7)	84(35.4)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4(10.9)	41(15.6)	51(21.5)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34(26.4)	77(29.3)	63(26.6)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29(22.5)	30(11.4)	16( 6.8)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9( 7.0)	13( 4.9)	11( 4.6)	33( 5.2)
	기 타	13(10.1)	16( 6.1)	12( 5.1)	41( 6.5)
합 계		129(20.5)	263(41.8)	237(37.7)	629(100.0)

$\chi^2=32.248$ ,  $df=10$ ,  $p<.001$

#### 4.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와와의 관계

다음은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이 평소 인식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 인식도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7792로 나타났다.

평소 인식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전체 11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자원봉사활동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겉치레의 성격이 강하지 않다.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다. 보람있는 것이다.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공부가 되는 것이다.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비 강제적인 것이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등이다. 각각의 문항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 척도는 5점 척도였으나 리코딩(recoding)하여 3점 척도로 변경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표 3-30>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겉치레의 성격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겉치레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28명(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4명(24.5%),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7명(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겉치레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107명, 32.6%)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48명, 31.2%)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겉치레의 성격)

(단위: 명,(%))

구 분		겉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49(33.3)	44(28.6)	107(32.6)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21(14.3)	21(13.6)	64(19.5)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39(26.5)	48(31.2)	87(26.5)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26(17.7)	24(15.6)	25( 7.6)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5( 3.4)	6( 3.9)	22( 6.7)	33( 5.2)
	기 타	7( 4.8)	11( 7.1)	23( 7.0)	41( 6.5)
합 계		147(23.4)	154(24.5)	328(52.1)	629(100.0)

$\chi^2=19.136$ ,  $df=10$ ,  $p<.05$

<표 3-31>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책임감의 필요성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0명(73.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6명(18.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3명(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라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148명, 32.2%)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38명, 32.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책임감의 필요)

(단위: 명,(%))

구 분		책임감이 필요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27(50.9)	38(32.8)	135(29.3)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2(22.6)	33(28.4)	61(13.3)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2( 3.8)	24(20.7)	148(32.2)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9(17.0)	13(11.2)	53(11.5)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0( 0.0)	3( 2.6)	30( 6.5)	33( 5.2)
	기 타	3( 5.7)	5( 4.3)	33( 7.2)	41( 6.5)
합 계		53( 8.4)	116(18.4)	460(73.1)	629(100.0)

$\chi^2=45.451$ ,  $df=10$ ,  $p<.001$

<표 3-32>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보람있는 것이라는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보람있는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2명(7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28명(20.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9명(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보람있는 것이라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



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150명, 32.5%)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50명, 39.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보람있는 것)

(단위: 명,%)

구 분		보람있는 것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5(38.5)	50(39.1)	135(29.2)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0(25.6)	31(24.2)	65(14.1)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4(10.3)	20(15.6)	150(32.5)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7(17.9)	16(12.5)	52(11.3)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0( 0.0)	5( 3.9)	28( 6.1)	33( 5.2)
	기 타	3( 7.7)	6( 4.7)	32( 6.9)	41( 6.5)
합 계		39( 6.2)	128(20.3)	462(73.4)	629(100.0)

$\chi^2=31.822$ ,  $df=10$ ,  $p < .001$

<표 3-33>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인생공부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 봉사활동은 인생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19명(66.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8명(25.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2명(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인생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136명, 32.5%)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20명, 38.5%)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인생 공부)

(단위: 명,(%))

구 분	인생 공부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20(38.5)	44(27.8)	136(32.5)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9(17.3)	36(22.8)	61(14.6)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8(15.4)	32(20.3)	134(32.0)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1(21.2)	32(20.3)	32( 7.6)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2( 3.8)	4( 2.5)	27( 6.4)	33( 5.2)
	기 타	2( 3.8)	10( 6.3)	29( 6.9)	41( 6.5)
합 계	52( 8.3)	158(25.1)	419(66.6)	629(100.0)	

$\chi^2=38.574$ ,  $df=10$ ,  $p<.001$

<표 3-34>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상성의 성격이라는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4>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무보상)

(단위: 명,(%))

구 분	무보상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6(26.7)	35(28.7)	149(33.3)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5(25.0)	30(24.6)	61(13.6)	106( 16.9)
	참여정보 부족때문에	18(30.0)	29(23.8)	127(28.4)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9(15.0)	15(12.3)	51(11.4)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2( 3.3)	4( 3.3)	27( 6.0)	33( 5.2)
	기 타	0( 0.0)	9( 7.4)	32( 7.2)	41( 6.5)
합 계	60( 9.5)	122(19.4)	447(71.1)	629(100.0)	

$\chi^2=18.276$ ,  $df=10$ ,  $p<.05$

자원봉사활동은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47명(71.1%)으로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22명(19.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0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149명, 33.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18명, 30.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5$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자원봉사활동은 비강제적인 것이다라는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비강제적인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4명(7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5명(18.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0명(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비강제적)

(단위: 명,(%))

구 분		비강제적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8(36.0)	35(30.4)	147(31.7)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5(30.0)	21(18.3)	70(15.1)	106( 16.9)
	참여정보 부족때문에	7(14.0)	27(23.5)	140(30.2)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4( 8.0)	26(22.6)	45( 9.7)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4( 8.0)	3( 2.6)	26( 5.6)	33( 5.2)
	기 타	2( 4.0)	3( 2.6)	36( 7.8)	41( 6.5)
합 계		50( 7.9)	115(18.3)	464(73.8)	629(100.0)

$\chi^2=31.851$ ,  $df=10$ ,  $p<.001$

자원봉사활동은 비강제적인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147, 31.7%)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140명, 30.2%)이 상대적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35명, 30.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라는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35명(69.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9명(25.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5명(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138명, 31.7%)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60명, 37.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건강사회 조성)

(단위: 명,(%))

구 분		건강사회 조성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13(37.1)	60(37.7)	127(29.2)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0(28.6)	36(22.6)	60(13.8)	106( 16.9)
	참여정보 부족때문에	4(11.4)	32(20.1)	138(31.7)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6(17.1)	21(13.2)	48(11.0)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0( 0.0)	6( 3.8)	27( 6.2)	33( 5.2)
	기 타	2( 5.7)	4( 2.5)	35( 8.0)	41( 6.5)
합 계		35( 5.6)	159(25.3)	435(69.2)	629(100.0)

$\chi^2=30.694$ ,  $df=10$ ,  $p<.01$

<표 3-37>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인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다라는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7> 자원봉사활동 미활동 이유와 인식도(누구나 참여가능)

(단위: 명,(%))

구 분		누구나 참여가능			합 계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대학 시절 미활동	학교공부 때문에	20(35.1)	42(38.9)	138(29.7)	200( 31.8)
	취업준비 때문에	12(21.1)	27(25.0)	67(14.4)	106( 16.9)
	참여정보 부족 때문에	11(19.3)	20(18.5)	143(30.8)	174( 27.7)
	필요성을 못느껴	10(17.5)	13(12.0)	52(11.2)	75( 11.9)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1( 1.8)	4( 3.7)	28( 6.0)	33( 5.2)
	기 타	3( 5.3)	2( 1.9)	36( 7.8)	41( 6.5)
합 계		57( 9.1)	108(17.8)	464(73.8)	629(100.0)

$\chi^2=24.266$ ,  $df=10$ ,  $p<.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4명(7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8명(17.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7명(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143명, 30.8%)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학교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42명, 38.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1$ )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원봉사활동 인식 및 만족(성취)도와 집단간의 평균비교

여기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 만족도, 그리고 인식이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장소, 교육의 유무, 성별, 지역별, 현재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라 집

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3-38> 봉사활동 교육장소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 평균비교

구 분	봉사활동교육 장소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	학교	206	3.38	.83	285	-2.196*
	봉사활동기관	81	3.62	.81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에 대한 이해	학교	206	3.28	.77	285	-1.052
	봉사활동기관	81	3.38	.77		
잠재능력과 소질 활용의 기회	학교	206	3.23	.79	285	-.523
	봉사활동기관	81	3.28	.87		
장래직업 탐색의 기회	학교	206	2.98	.86	285	-2.011*
	봉사활동기관	81	3.21	.90		
이웃 환경의 이해	학교	206	3.50	.85	285	-.504
	봉사활동기관	81	3.56	.81		
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	학교	206	3.23	.85	285	.369
	봉사활동기관	81	3.19	.98		
개인적 책임감 향상	학교	206	3.34	.78	122.314	-.661
	봉사활동기관	81	3.42	.97		

\* p<.05, \*\* p<.01, \*\*\* p<.001

<표 3-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교시절의 봉사활동 교육장소에 따라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취도의 하위변인들이 있다.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인들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변인(p<.05), 장래 직업탐색의 기회변인(p<.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성취도의 하위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교시절의 봉사활동 교육장소에 따라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있는가를 분석하였지만,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9> 봉사활동 교육장소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인식차이 평균비교

구 분	봉사활동교육 장소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여유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206	2.51	.77	285	.201
	봉사활동기관	81	2.49	.82		
겉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학교	206	2.28	.85	285	-.919
	봉사활동기관	81	2.38	.81		
책임감이 필요한 것	학교	206	2.46	.76	211.666	-3.579***
	봉사활동기관	81	2.74	.52		
보람있는 것	학교	206	2.50	.71	209.574	-3.930***
	봉사활동기관	81	2.79	.49		
돈으로 구입 불가능	학교	206	2.57	.71	176.639	-2.219*
	봉사활동기관	81	2.75	.58		
인생 공부	학교	206	2.50	.68	183.576	-2.687**
	봉사활동기관	81	2.70	.53		
보상이 없는 것	학교	206	2.62	.64	127.225	1.334
	봉사활동기관	81	2.49	.76		
비 강제적인 것	학교	206	2.63	.64	285	.303
	봉사활동기관	81	2.60	.70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학교	206	2.50	.67	170.260	-2.843**
	봉사활동기관	81	2.73	.57		
누구나 참여가능	학교	206	2.54	.70	170.829	-2.320*
	봉사활동기관	81	2.73	.59		
계획적 참여	학교	206	2.20	.79	285	-3.059**
	봉사활동기관	81	2.51	.69		

\* p<.05, \*\* p<.01, \*\*\* p<.001

<표 3-3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교시절의 봉사활동 교육장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인식차이 평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인식 하위변인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평균간의 비교에서 의미있는 하위변인들은 책임감의 필요성변인(p<.001), 보람변인(p<.001), 돈으로 구입불가능 변인(p<.05), 인생공부 변인(p<.01), 건강사회조성 변인(p<.01), 누구나 참여가능변인(p<.05), 계획적

참여변인(p<.0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성취도의 하위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0>에서는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유무에 따라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취도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봉사활동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봉사활동 교육유무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 평균비교

구 분	봉사활동 교육유무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	있다	296	3.45	.85	802	2.916**
	없다	508	3.27	.89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에 대한 이해	있다	296	3.30	.78	721.927	5.346***
	없다	508	2.97	.97		
잠재능력과 소질 활용의 기회	있다	296	3.24	.83	802	2.566*
	없다	508	3.07	.95		
장래직업 탐색의 기회	있다	296	3.04	.88	678.850	4.883***
	없다	508	2.71	1.00		
이웃 환경의 이해	있다	296	3.51	.85	802	2.625**
	없다	508	3.34	.91		
여가시간 창의적 활동에 도움	있다	296	3.22	.89	802	3.792***
	없다	508	2.96	.94		
개인적 책임감 향상	있다	296	3.36	.85	802	2.892**
	없다	508	3.17	.92		

\* p<.05, \*\* p<.01, \*\*\* p<.001

<표 3-41>에서는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유무에 따라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봉사활동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변인은 봉사활동 타인도움변인(p<.05), 자원봉사 수혜자만족 변인(p<.05),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변인(p<.05), 심리적 인정 및 보상변인(p<.01), 개인의 새로운 부분 발견



계기 변인(p<.05)으로 나타났다.

<표 3-41> 봉사활동 교육유무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 평균비교

구 분	봉사활동 교육유무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봉사활동 타인도움	있다	296	3.55	.77	802	2.345*
	없다	508	3.41	.82		
자원봉사 수혜자의 만족	있다	296	3.40	.81	802	2.215*
	없다	508	3.27	.78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낌	있다	296	3.54	.81	802	.871
	없다	508	3.49	.81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	있다	296	3.53	.84	668.195	2.219*
	없다	508	3.39	.92		
개인적 성취감	있다	296	3.57	.84	657.775	1.545
	없다	508	3.48	.91		
심리적 인정 및 보상	있다	296	3.29	.89	802	3.145**
	없다	508	3.09	.88		
개인의 새로운 부분 발견 계기	있다	296	3.33	.85	802	2.321*
	없다	508	3.17	.96		

\* p<.05, \*\* p<.01, \*\*\* p<.001

<표 3-42>에서는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유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봉사활동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변인은 책임감의 필요성 변인(p<.01), 보람변인(p<.01), 계획적 참여변인(p<.05)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고교시절 봉사활동 성취도와 만족도의 평균비교를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의 결과가 있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42> 봉사활동 교육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차이 평균비교

구 분	봉사활동 교육유무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여유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있다	296	2.52	.78	802	-.429
	없다	508	2.55	.74		
겉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있다	296	2.32	.83	802	-.075
	없다	508	2.33	.80		
책임감이 필요한 것	있다	296	2.54	.71	529.100	-3.273**
	없다	508	2.70	.59		
보람있는 것	있다	296	2.58	.67	523.794	-3.259**
	없다	508	2.73	.55		
돈으로 구입 불가능	있다	296	2.62	.68	566.423	-.814
	없다	508	2.66	.62		
인생 공부	있다	296	2.55	.65	802	-1.385
	없다	508	2.62	.62		
보상이 없는 것	있다	296	2.58	.68	802	-.946
	없다	508	2.63	.64		
비 강제적인 것	있다	296	2.63	.65	577.291	-1.309
	없다	508	2.69	.60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있다	296	2.57	.66	556.107	-1.873
	없다	508	2.65	.58		
누구나 참여가능	있다	296	2.60	.67	583.164	-1.499
	없다	508	2.67	.62		
계획적 참여	있다	296	2.28	.78	802	-2.249*
	없다	508	2.40	.75		

\* p<.05, \*\* p<.01, \*\*\* p<.001

<표 3-43>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식도의 하위변인 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여유변인(p<.05), 겉치레 성격변인(p<.05), 책임감의 필요성 변인(p<.05), 보람 변인(p<.05), 금전적 가치변인(p<.01), 인생공부 변인(p<.001), 건강사회조성변인(p<.01), 참여가능변인(p<.05), 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43>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차이 평균비교

구 분	성별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여유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	372	2.60	.72	797.865	2.054*
	여	432	2.49	.78		
겉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남	372	2.40	.78	796.396	2.315*
	여	432	2.27	.83		
책임감이 필요한 것	남	372	2.70	.61	799.794	2.366*
	여	432	2.59	.67		
보람있는 것	남	372	2.72	.56	801.519	2.095*
	여	432	2.63	.64		
돈으로 구입 불가능	남	372	2.71	.56	798.261	2.675**
	여	432	2.59	.70		
인생 공부	남	372	2.69	.56	800.035	4.102***
	여	432	2.51	.68		
보상이 없는 것	남	372	2.61	.64	802	-.011
	여	432	2.61	.67		
비 강제적인 것	남	372	2.69	.59	797.606	1.148
	여	432	2.64	.64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남	372	2.68	.55	801.813	2.677**
	여	432	2.57	.65		
누구나 참여가능	남	372	2.69	.61	798.719	1.983*
	여	432	2.60	.66		
계획적 참여	남	372	2.41	.74	802	1.874
	여	432	2.31	.78		

\* p<.05, \*\* p<.01, \*\*\* p<.001

<표 3-44>에서는 지역별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에 있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가치 있는 사람변인(p<.05)과 개인적 성취감 변인(p<.05)에서만 통계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는 연구문제 2의 연구가설(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을 부분 수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분 수용하는 하위변인들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통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꼈다는 하위변인과 개인적 성취감을 느꼈다는 하위변인만이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을 통한 성취도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평

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없었다.

<표 3-44> 지역별에 따른 고교시절 봉사활동 만족도 평균비교

구 분	지역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봉사활동 타인 도움	제주	400	3.51	.76	792.796	1.834
	부산	404	3.41	.85		
자원봉사 수혜자의 만족	제주	400	3.32	.76	796.270	-.209
	부산	404	3.33	.83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낌	제주	400	3.58	.78	802	2.219*
	부산	404	3.45	.84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	제주	400	3.48	.85	802	1.056
	부산	404	3.41	.94		
개인적 성취감	제주	400	3.58	.83	790.719	1.996*
	부산	404	3.45	.94		
심리적 인정 및 보상	제주	400	3.22	.84	802	1.654
	부산	404	3.11	.93		
개인의 새로운 부분 발견 계기	제주	400	3.28	.91	802	1.639
	부산	404	3.18	.94		

\* p<.05, \*\* p<.01, \*\*\* p<.001

<표 3-45>에서는 지역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식차이 평균비교를 분석한 결과, 인식도의 하위변인 중 걸치레 성격변인(p<.001), 책임감의 필요성 변인(p<.001), 보람변인(p<.001), 금전적 가치변인(p<.001), 인생공부 변인(p<.001), 건강사회조성변인(p<.01), 참여가능변인(p<.001), 계획적 참여변인(p<.001)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에서는 연구문제 3의 연구가설(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인식도가 높을 것이다)을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부분 수용하는 하위변인에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 보람있는 것,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 인생공부가 되는 것,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누구나 참여가능하다는 것, 계획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지역 대학생

들은 부산지역대학생들보다 자원봉사활동이 걸치레가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지역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식차이 평균비교

구 분	지역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여유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	400	2.54	.74	802	-.040
	부산	404	2.54	.76		
걸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제주	400	2.23	.82	802	-3.583***
	부산	404	2.43	.79		
책임감이 필요한 것	제주	400	2.78	.49	703.513	6.228***
	부산	404	2.50	.74		
보람있는 것	제주	400	2.78	.52	762.172	4.842***
	부산	404	2.57	.66		
돈으로 구입 불가능	제주	400	2.74	.57	775.996	4.087***
	부산	404	2.55	.69		
인생 공부	제주	400	2.68	.59	793.442	3.730***
	부산	404	2.51	.66		
보상이 없는 것	제주	400	2.61	.67	802	-.244
	부산	404	2.62	.64		
비 강제적인 것	제주	400	2.70	.59	796.383	1.291
	부산	404	2.64	.65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제주	400	2.69	.55	782.364	3.298**
	부산	404	2.55	.65		
누구나 참여가능	제주	400	2.73	.58	785.427	3.646***
	부산	404	2.56	.68		
계획적 참여	제주	400	2.51	.68	779.565	5.574***
	부산	404	2.21	.81		

\* p<.05, \*\* p<.01, \*\*\* p<.001

<표 3-46>에서는 현재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평균비교를 했다. 비교분석 결과 인식도의 하

위변인 중 대부분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걸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변인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현재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차이 평균비교

구 분	현재 봉사활동여부	사례 (명)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미활동	629	2.52	.76	289.090	-1.724
	현재활동	175	2.62	.72		
걸치레의 성격이 약하다	현재미활동	629	2.29	.82	297.741	-2.744**
	현재활동	175	2.47	.76		
책임감이 필요한 것	현재미활동	629	2.65	.63	802	.441
	현재활동	175	2.62	.68		
보람있는 것	현재미활동	629	2.67	.59	802	-.035
	현재활동	175	2.67	.66		
돈으로 구입 불가능	현재미활동	629	2.62	.66	307.114	-1.918
	현재활동	175	2.72	.58		
인생 공부	현재미활동	629	2.58	.64	802	-.939
	현재활동	175	2.63	.61		
보상이 없는 것	현재미활동	629	2.62	.65	802	.170
	현재활동	175	2.61	.67		
비 강제적인 것	현재미활동	629	2.66	.62	802	-.735
	현재활동	175	2.70	.62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현재미활동	629	2.64	.59	249.965	1.140
	현재활동	175	2.57	.68		
누구나 참여가능	현재미활동	629	2.65	.64	802	.338
	현재활동	175	2.63	.64		
계획적 참여	현재미활동	629	2.37	.76	802	.835
	현재활동	175	2.31	.79		

\* p<.05, \*\* p<.01, \*\*\* p<.001

## 제 4 장 결 론

### 제1절 연구 요약

본 논문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관한 내용을 지역간(부산지역과 제주 지역)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실태 비교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은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영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미참여 이유, 대학생시절 자원봉사활동 참여결정 요인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자원봉사 미활동 이유와 성취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자원봉사 미활동 이유와 만족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자원봉사 미활동 이유와 참여인식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이 구성되어진 이유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의 목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을 참여했던 세대인 현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학생봉사활동을 통한 만족도와 성취도,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지역간 비교 분석하여 파악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첫째, 고등학교 시절 학생봉사활동 참여 영역과 영역의 결정 주체,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을 통한 고등학교 시절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둘째,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요인,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결정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셋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조사에 활용된 통계자료의 응답자는 총 804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성이 372명, 여성이 432명이었으며, 학년별에서는 대학 1학년 183명, 2학년 194명, 3학년 223명, 4학년이 204명이었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이 400명으로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대학

생은 404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했던 영역에서는 일손돕기 활동영역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시설 보전 활동, 위문활동, 캠페인 활동, 자선구호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고등학교 재학시 봉사활동 영역의 결정은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기 자신, 부모님 43명(5.3%)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9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6.8%를 차지하는 데 불과했다. 교육장소로는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활동기관보다는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져 현장감이 있는 봉사활동 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73명(5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조사응답자인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629명 중 200명(31.8%)이 학교공부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7.7%), 취업 준비 때문(16.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일반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생봉사활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6명의 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단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공부 때문과 취업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64.1%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생들은 학교공부와 취업준비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37.1%가 자기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32.6%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10.9%),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7.4%),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6.3%)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개인적인 성취감 기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현재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공부 때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



한 정보가 없어서, 취업준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취도, 만족도, 그리고 인식이 고교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장소, 교육의 유무, 성별, 지역별, 현재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라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각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연구문제 1의 연구가설(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이다)은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연구가설(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은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수용하는 하위변인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통해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꼈다는 하위변인과 개인적 성취감을 느꼈다라는 하위변인으로서, 2개의 하위변인만이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3의 연구가설(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생들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인식도가 높을 것이다)은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부분 수용되는 하위변인에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 보람있는 것,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 인생공부가 되는 것,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것, 계획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제언

중·고등학생 시절에 의무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을 참여했던 세대인 현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시절 학생봉사활동의 만족도와 대학생 시절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봉사활동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로 진학한 이후 대학생 시절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고,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원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는 별도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학교공부,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문적인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01. 『학생봉사활동 지도편람(학교 81232 - 2083)』.
- 권순미.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성. 1999.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해조. 1987. “대학생 불런티어 활동에 관한 실제 조사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수 외. 2004. 『자원봉사의 이해(개정판)』. 학지사.
- 김성준. 1998. “제주시형 자원봉사모형에 대한 서설적 연구”.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9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_\_\_\_\_. 2004. “자원봉사활동 참가자의 개인별 특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7권 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영호. 1999.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인식연구”. 『안동과학대학 논문집』 제21호. 안동과학대학.
- 김용선. 2001.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성과욕구에 관한 연구-강릉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호. 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수원시 인문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 1994. “자원봉사활동의 중도탈락 요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옥희. 199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중단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 박정희. 1994.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4.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 선우현. 1998. “학생운동과 사회복지”. 『사회봉사』 제4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송지은. 2001.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성 유지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향. 1993. “한국대학생의 자원봉사의 동기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태주. 1999. “집단별 자원봉사활동의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고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현. 1994.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그 발전 방향”.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 이성록. 2000. 『새로운 공동체-영역 제4섹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영희.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선.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재. 2001. “자원봉사자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1995. “외국의 자원봉사”. 『대학의 자원봉사 핸드북』.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 장윤숙. 2001.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요인에 관한 비교연구-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내 집단간의 비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1998.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1999. “대학생 자원봉사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휘일. 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5.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실천과 활성화 방안”. 『오늘의 청소년』. 제10권 6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_\_\_\_\_. 2000. “자원봉사 program 관리 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2000년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샵 자료집.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중앙일보 자원봉사 사무국. 1995. 『자원봉사의 길』. 중앙일보사.

- 최일섭 외. 1996. 『미국의 자원봉사 유래와 현황』.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표시열. 1993. “현대사회와 대학의 기능”. 『대학교육』.
- 한수정. 1999.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외성 외. 1998. 『대학사회봉사론』. 유허출판사.
- 홍봉선 · 남미애. 2004. 『청소년복지론(개정2판)』. 양서원.
- Dunn, P. C. 1995. "Volunteer Management".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ed.)*. NASW Press.
- Ilsley, P. J. 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Jossey-Bass Publishers.
- Schindler-Rainman, E. & Lippitt, R. 1971. *The Volunteer Community: Creative use of human resource*. National Training Laboratory, Learning Resource Inc.
- Sheard, J. 1995. "From Lady Bountiful to Active Citizen". Justin Davis Smith. Colin Rochester & Rodney Hedley. *An Introduction to The Voluntary Sector*. Routledge.



## Abstract

### A Study on regional comparison of volunteer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Yong-Jin Par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in-Yeol Nam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regional comparison of volunteer activities in different areas. Among various areas, I focus on Pusan and Jeju which are the second largest city and the best tourism city in Korea.

First of all,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encourage volunteer work of university students contributing the foundational information. It is consist of the rising the issues, the goal of the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s in volunteer work, analysis and the conclusion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is looked through with the matter related volunteer work in high school at first. And then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 work is researched followed by itself performed voluntarily.

For the research, a self questionnaire is chosen. I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 of questionee, volunteer work experience in high school and university, and general experience of all kinds volunteer work.

Total 804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ee contains 372 male and 432 female. They are also consist of 183 freshmen, 194 sophomores, 224 juniors and 204 seniors. 49.8%(400 students) of them lives in Jeju on the other hand 50.2%(404 students) of them lives in Pusan.

The kinds of volunteer work from interviewers are giving hand activities, preserving environment and surrounding, consolatory visits, campaign, almsgiving activities. Teachers in high school followed by oneself and parents seems to influence the areas in which the work in. Only 36.8% of them had a proper education that is needed for a volunteer work when they were at high school. They had trains not at professional volunteer institutes but at schools where the reality is less enough than the institutes. It shows that the most of questionee feel the necessary of volunteer work. While not many students are eventually involved in volunteer works. 200 students(32.8%) of 629 answered that they can't commit volunteer work for preparing of careers and the rest of them doesn't feel the necessary of it. This trend has proved that the polic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is for encouraging the further volunteer works isn't much effecting

on the graduates from high schools or middle schools.

With the question asking the reason they are involved in the volunteer work, 32.6% of them wants to help the poor, 10.9% of them to spend rewording time in their extra time, 7.4% of them to dis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in this society and 6.3% of them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n their region. Also I research that achievement in volunteer work,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re influenced or not by certain educations, the place of it.

I focus on that the gap, between sexes, regions and present volunteering activities, has any meaning statically. There are some connection with the differences and some variables.

Three installations are raised in this thesis. First of them is that there will be more

necessaries of volunteer work in Jeju than in Pusan. This installation is proved as the university students in Jeju feel them than those students do in Pusan. Second installation is that the satisfaction of their high school

volunteer work in Jeju will be higher than in Pusan. It is partially proved as a certain amount of students feel self-rewarding and self-esteem. Third of them is that the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in Jeju can be higher than in Pusan. It is partially proved as some students in Jeju recognize volunteer work as it is rewarding, precious experience for the life, needs responsibility, can't be bought and also it could make the society healthy and everyone can enjoy it and join it. The students answered that when they join it they feel the needs of arranged plans.

At last I propose that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es which could be supportive to generalize the installations.





<설문지>

--	--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 준비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설문문항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 참여했던 학생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리며, 순수하게 연구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연구자 : 박용진(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연락처 : 064-754-2351)

※ 아래의 설문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응답 칸에 ✓ 표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I.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 ① 여성                    \_\_\_ ② 남성
2. 귀하의 전공 계열은 어디에 해당되니까?  
\_\_\_ ① 인문·사회계열    \_\_\_ ② 자연·이공계열    \_\_\_ ③ 예·체능계열
3. 귀하의 대학교 학년은?  
\_\_\_ ① 1학년            \_\_\_ ② 2학년            \_\_\_ ③ 3학년            \_\_\_ ④ 4학년
4. 귀하의 종교는?  
\_\_\_ ① 기독교    \_\_\_ ② 천주교    \_\_\_ ③ 불교    \_\_\_ ④ 없다    \_\_\_ ⑤ 기타 종교

(다음 페이지로)

**II.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고등학생 시절 어느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까?

- ① 일손돕기 활동       ② 위문 활동       ③ 캠페인 활동  
 ④ 자선구호 활동       ⑤ 환경·시설 보전 활동       ⑥ 지도활동  
 ⑦ 지역사회개발활동

6.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 영역의 결정은 누가 하였습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부모님       ③ 자기 자신       ④ 기타(\_\_\_\_)

7.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고등학생 시절의 봉사활동을 기억하면서 질문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응답 칸에  표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질문	TEU INTERNATIONAL UNIVERSITY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봉사활동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2) 본인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4) 장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5) 자신과 다른 이웃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6) 여가시간을 창의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문제 파악과 결정 등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되었다					

9.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 ① 학생 자신의 평가만 있었다  
 ② 교사의 평가만 있었다  
 ③ 학생 자신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가 있었다  
 ④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⑤ 잘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로)



**IV. 고등학생과 대학생일 때 경험했던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 질문입니다.**

15. 귀하가 고등학생일 때 수행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2)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의 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였다					
3)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 적이 있다					
4) 나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개인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6) 주변 사람들도부터 심리적 인정 및 보상을 받았다					
7) 나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16.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2) 겉치레의 성격이 강하다					
3)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다					
4) 보람있는 것이다					
5)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6) 인생공부가 되는 것이다					
7)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8) 강제적인 것이다					
9)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10)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11) 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는 것이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